

<p>지면 안 내</p>	<p>02 제3결합실의 '탄력적' 운영 - '학교의 본래 목적을 지켜야' Vs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대처'</p>	<p>03 한성대신문의 현재 - 대학언론의 '위기' 현 상황과 원인, 대책</p>	<p>04 장학금의 역할, 장학금도 잘 사는 학생이 받는다? - 취지와는 멀어진 장학금의 현실</p>	<p>05 공리주의와 칸트주의 - 도덕적 의무와 최대 다수 의 행복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p>	<p>07 침묵의 미덕이 넘치는 교 수와 대학생 - 소통이 단절된 스승과 제자</p>	<p>08 인물사진의 가장 카시전 - 사진을 통해 느껴지는 거장의 손길</p>
--	---	--	---	--	--	--

삼 학 승

‘한성대신문사’에 대한 복잡한 고찰

이번 호 신문에는 개인적으로 신문에 재직하면서 가장 '파격적'이라 생각되는 기사를 쓰게 됐다. 3면 취재기획 면의 기사, '한성대 신문사는 위기에 빠져 있는가'다.

우리 신문사는 '한성대신문'이란 이름으로 학내의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취재·학술·사회·문화, 일명 '취학사문'이라 불리는 전통적인 틀에 맞춰 우리 학교의 일거수일투족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회의 굽직한 사안부터 학생들의 일상적인 관심사까지 한성대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자들의 레이더망에 걸려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 신문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는 없었다. 사실 신문사도 한성대란 테두리에 넣어보면 상당히 '쓸만한' 조직인데 말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사는 마치 내부고발을 하는 것과 같은 묘한 느낌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5학기 째 신문사에서 근무하면서 신문의 다양한 면을 목격했고, '한성대신문사'라는 조직 자체에 대해 상당히 흥미로운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어쩌면 '언젠가 이런 기사를 쓴다면'이란 생각을 남몰래 해왔는지도 모르겠다. 신문사는 아주 매력적인 곳이지만 동시에 어딘가 깊숙한 곳에 치료해야 할 근본적인 상처도 있는 곳이다. 현 시대에 맞게 유연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원칙을 고수하려는 데서 오는 괴리감 같은 것 말이다.

기사 제목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대답은 이러하다. 우리 학교를 포함한 대학언론이란 분야는 표면적으로 볼 때 분명히 위기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속에 피어오르는 꽃은 더욱 아름다운 법이다. 열정 하나로 뚝뚝 뚫은 기자들은 학내 다양한 주제와의 갈등이나 동기의 부재, 강의와 과제로 바쁜 상황에서도 함께 신문을 만들고 있다. 여기, 한성대 신문사는 일상의 여유는 부족하지만 치열한 낭만은 학내 어느 조직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러한 신문사 기자들의 이성과 열정이 살아 있는 한 현재의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

이삼미 편집국장

2011년 대동제 'π', 그 무한대 속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열려, MBC 나눔 콘서트도 함께해

2011년 대동제가 오는 25일 시작해 27일까지 학내 곳곳에서 진행된다.

축제가 진행되는 3일 동안 교내에서는 열기구, 이동 동물원, 로데오 기구 등의 기구 설치와 함께 포토존 행사, 외국 문화 알리기 행사, 글로벌 라운지 파티, 학생회 임원 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된다. 김미정(한국어문 4)부총학생회장은 "그동안의 대동제는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점 등 일부 활동에 너무 치중했다"며 "이번 대동제가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동제의 이름 '원주율π'과 관련해서는 "소수점 아래로 숫자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원주율의 성질처럼 학생들도 이번 축제를 통해 무한한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일한 무대 행사

대동제 무대 행사에는 동아리 공연과 문선단 공연 외에도 연사 초청 행사, 가수들의 축하 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다.

동아리 공연은 왕산악, N.O.D, TRIAX 등이 참여하며, 문선단 공연에는 한국어문학과와 지식정보학부가 참여한다.



▲작년 대동제에서 초대가수 '타이거 JK'가 공연하는 모습

연사 초청 행사는 외부 연사가 초청되어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김미정 부총학생회장은 "연사 초청 행사는 총학생회 공약에도 있었던 만큼 아쉽게 준비한 계획이다. 학생들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고 행사의 취지를 언급했다.

▲ 학생총회 홍보 행사

이번 축제에는 학생회의 학생총회 홍보 행사도 포함되어 있다. 2학기에 예정되어 있는 학생총회는 등록금 동결과 학생요구안 실현을 요구하는 행사이다. 이와 관련해 김미정 부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에 대한 서명운동 참여자가 벌써 1천명을 돌파했다. 이번 대동제에는 팸플릿 배부와 학생회의 홍보행사를 통해 학생총회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더욱 끌어올릴 생각이다. 팸플릿 배부는 대동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학생회의 홍보행사는 무대 행사 중간에 이뤄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MBC 나눔 콘서트

이번 대동제의 하이라이트는 3일째 저녁부터 이뤄지는 나눔 콘서트이다. 이 행사는 장애인 재활 병원 건립을 위해 모금운동으로 진행되는 콘서트이다. 행사 진행은 선·정혜영 부부가 맡아서 진행하며 참여하는 연예인들은 김장훈, 이은미, 윤도현밴드, 달사벳 등이다. 이외에 아홉 팀 정도가 더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에는 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스승의 날을 맞이해 지난 11일 열린 '레드카펫 빛나는 스승의 날' 행사에서 김미정(한국어문 4) 부총학생회장이 정주택 총장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제공-대외협력팀)

“앱 개발자가 되어보세요”

공대생 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들이 관심 가질만한 분야

우리대학 앱 창작터에서 1인1앱(app)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앱 창작터는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바일분야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교육 및 제작 지원, 개발자 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 앱 개발에 필요한 테스트 지원, 앱의 홍보를 지원한다.

2010년 상반기부터 모바일 웹 개발이 블루칩으로 떠오름에 따라 우리학교도 지난 2010년 하계방학부터 안드로이드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정순선(산학협력단)팀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아 진행한 교육과정이 매스컴

에 보도되며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성과가 축적되어 이번에 앱창작터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우리학교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교육과정은 ▲기본개발자 과정(교육과정당 30명) ▲전문개발자 과정(교육과정당 10명)으로 나뉜다. 이 중 전문개발자 과정은 기초 과정을 이수했거나 혼자 앱을 개발해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개발자 과정은 △애플안드로이드스원도우 7을 ▲전문개발자 과정은 △SNS 앱개발 △모바일게임 △iPhone심화프로젝트 △안드로이드 포

팅 △인기앱개발 기획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달 20일까지 앱창작터 홈페이지(http://apps.hansung.ac.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apps@hansung.ac.kr)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개발자 과정의 경우 구술면접과 시험을 본다. 전 교육과정은 무료이며 예치금 10만원이 있다. 자세한 교육과정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순선 팀원은 "앱 개발 분야는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본인의 아이디어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다. 개발언어에 익

숙한 공대생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실제 앱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는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광범위한 분야가 연계되어 있다. 이에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삼미 기자 sangmi@hansung.ac.kr

사 령

장기자임

박종민(한국어문 2)

5월 사진 공모전



2010년 수상작

- 기간 : 5월 2일(월) 5월 ~ 19일(목) 오후 6시까지
- 대상 : 한성대학교 전 구성원 (학부, 대학원, 교수 및 직원)
- 주제 : 자유 (주제의 제약이 없음)
- 제출형식 : 8×10크기로 인화해 제출
- 제출장소 : 학생회관 제1별관(기업은행 맞은편 건물) 2층 한성대신문사
- 발표 : 한성대신문 452호(6월 7일 발행)
- 상금 : 최우수상(1명)- 상장 및 상금 40만원
가작(1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 문의 : 한성대신문사 02) 760-4186
편집국장 010-7124-5831 / press@hansung.ac.kr

※ 1인당 3점의 작품에 한해 받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겹봉에 성명/소속/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관 열람실의 '탄력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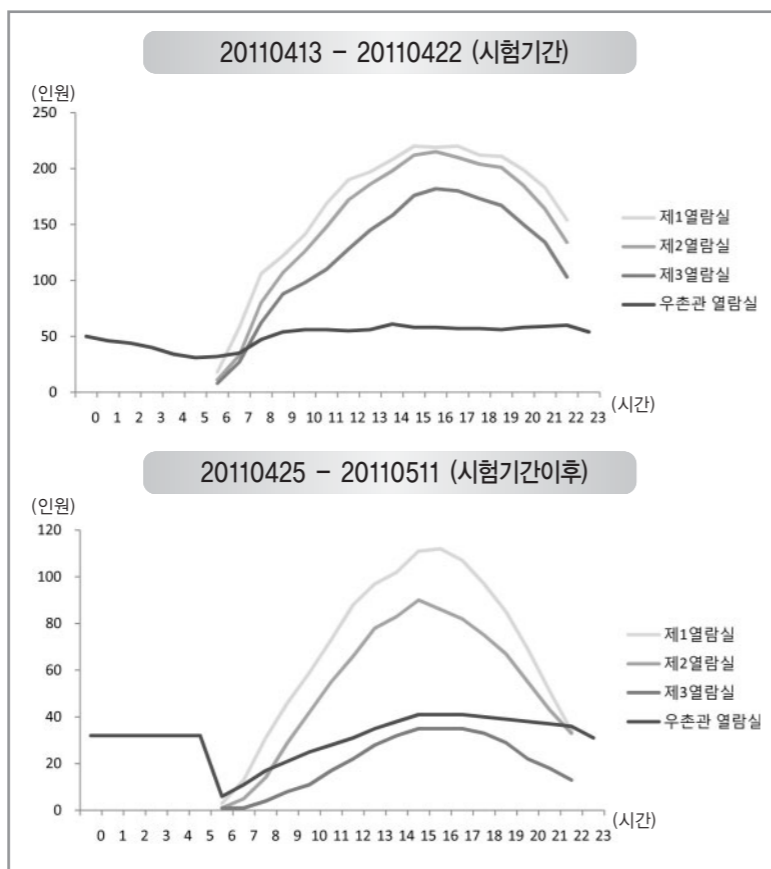
'학교의 목적을 지켜야 Vs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대처'

미래관 일반열람실 중 제3열람실이 지난 달 1일부터 '탄력적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일반 열람실의 이용률 저조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일반열람실 운영을 일부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간고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제1, 2열람실은 본래 기준으로 운영하나 제3열람실은 1, 2열람실 좌석이 부족할 경우에만 개방된다.

이에 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크게, 열람실을 종전과 같이 개방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이용률을 감안하면 적절한 대처라는 의견 두 가지다.

김정근(경영 3)학생은 "현재 탄력적인 열람실 운영이 전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종전처럼 모두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이용률이 낮으면 늘릴 방안을 연구해서 열람실 이용률이 낮다고 문을 닫는 것은 대학의 목적과 반대되는 일이다. 대학의 목적은 학생들을 교육시켜 역량을 갖추게 함이지 운영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재훈(행정 1, 휴학) 학생은 "학교가 원래 공부하는 곳인 만큼 열람실을 24시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른 만큼 이용하는 시간대도 다양하게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미라의(패 3)학생은 "시험기간 중 1주일만 개방하는 것에 대해 주변 학생들도 불만이 많다. 강의에 따라 시험기간이 다른 학생들보다 긴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시간이 다 됐다고 쫓겨났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시험기간 전후로 2주 정도는 넉넉히 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열람실 개방시간과 함께 열람실의 자리배치 시스템 문제도 있다. 자리

를 더 하고 싶으면 우촌관 열람실이 24시간 개방이나 그쪽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률이 낮아 남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24시간 열람실이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하는 학생이 공부할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는 실질적인 이용률이 낮아 열람실 운영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다. 임재웅(학술정보팀)팀장은 "우촌관 열람실은 24시간 개방이지만 시험기간이 아닌 때엔 10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를 보기 드물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올려져서 사용되고 낭비를 줄여야 한다. 전기세와 냉난방비 등 열람실을 운영하는 데는 하루에 약 24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험기간이 아닌 경우에 전 좌석의 30%도 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의견대로 우촌관 열람실을 다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24시간 개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률이 낮아 (이용률이)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용률은 낮았는데 개방요구는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열람실 개방시간과 함께 열람실의 자리배치 시스템 문제도 있다. 자리

배치 시스템에 의하면 '탄력'이지만 실제 열람실에 들어가보면 빈 좌석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있던 상황이었다. 김정근 학생은 "우촌관 열람실의 경우 자리배치 시스템이 미래관에 있다보니 좌석표를 발급하지 않고 가버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불만은 다음 학기부터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정보관 측에서 새로운 자리배치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좌석표를 뽑고 30분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좌석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현재 서경대 도서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중간 고사가 끝난 지난 12일 오후 8시 경 미래관 제1열람실에는 19명, 제2열람실은 21명, 제3열람실은 12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었다. 평소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학교 측에서 열람실 이용률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전미라의(패 3)학생은 "열람실의 저조한 이용률을 늘릴 방안을 찾는 것도 학교측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측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이용 시간의 단축이러면 쓸쓸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간추린소식

우수강의수필공모전, 22일까지 접수

교육개발연구원에서 2010학년도 1, 2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강의수필공모전을 공모한다.

우수강의수필공모전이란 학생들에게 감동을 준 교수의 수업 방식 사례 등을 수필 형태의 글로 공모하는 대회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22일까지 수필의 형식으로 3천자 내의 분량의 글을 제출(hancl@hansung.ac.kr)하면 된다. 심사는 한국어문학부가 담당하며 공정함 심사를 위해 이들과 학과는 공개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심사결과는 5월 마지막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한성공지를 참고하거나 교육개발연구원(760-5816)으로 문의하면 된다.

Disney College Program 재개

대외협력팀은 'Disney College Program'을 이번 학기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10여 곳의 대학만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먼저 협력학교인 Montclair State University에서 10일간의 강의를 듣는다. 그 후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파크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게 된다. 수행하게 되는 일은 식당 서빙, 프론트, 라이프 가드, 캐시 등 테마파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 전반이며, 경비는 대략 600만원이 소요된다. 시급은 약 8천원이며 12학점이 인정된다.

김일환(대외협력팀)팀장은 "디즈니사의 사정으로 1년 반 동안 운영되지 못했는데 다행히 이번엔 운영이 되어서 기쁘다"며 "결정된 지 얼마 안 되는 사항이라 아직 자세한 선택방법은 미정이다. 다른 외국유학과 달리 세계적 대기업에서 실무경험도 할 수 있고, 미국의 조직문화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도전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성평등상담소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해

양성평등상담소에서 재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취지의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달 8일까지 성폭력 상담소 홈페이지(www.hansunggender.org)의 '성희롱과 성폭력' 메뉴에서는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방안을 온라인으로 교육한다.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정보도 제공한다.

홍성미(양성평등상담소) 전문위원은 "나와 다른 성별의 특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학생들이 이번 예방 교육을 통해 밝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히호' 라오스 위해 기부물품 받아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성대 해외봉사단 하히호'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미래관 앞에서 라오스 아이들을 위한 기부품을 받는다. 기부품으로는 문구, 티셔츠, 필기류 등을 받으며, 기부받은 물품 중 문구류는 라오스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티셔츠는 라오스 아이들의 가족 사진을 핸드프린팅하여 나누어 주는 데 쓰일 예정이다. 임성열(경영 2)하히호 3기 팀장은 "이번 기부행사에 참여하여 방명록을 작성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라오스의 토속품품을 증정할 예정이다"며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물품이 그곳 아이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랐다.

동정란

문찬(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교수 문 교수는 지난 4일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심사위원 위촉돼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오는 27일에는 『상품학』(공저/도서출판 청림)을 출간할 예정이다.

신영현(언어교육원)교수 신 교수는 오는 21일에 창원대학교에서 열리는 현대영미어문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사료잡편 사람들: 윌리엄 포크너의 '사토리스'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다.

인디뮤지션과 함께하는 예대 프리마켓

16일 우촌관과 미래관 사이 잔디광장에서 예술대학 학생회가 주최하는 프리마켓이 열린다.

프리마켓이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교환이나 판매를 하는 시장으로 벼룩시장 또는 프리 바자(free bazar)라고도 불린다. 예대 학생회는 매년 공대와 함께 진행하던 제전을 뒤로 미루고 입지 않는 옷이나 과제로 만든 작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프리마켓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영빈(의예 3) 예술대학 학생회장은 "예대는 여학생의 수가 많아서 제전 참여율이 낮다. 때문에 제전을 2학기부터 미루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리마켓을 열게 되었다. 아예 쓰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전공서적이든 집에서 잠자고 있는 물건 등 무엇이든 좋으니 가져와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프리마켓은 16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잔디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프리마켓에 판매자로 참여를 원하는 예대 학생은 소속 학과 학회장이나 예대 학생회를 통해 연락을 하

면 된다. 흑시 미리 연락을 하지 못한 학생이라도 행사 당일엔 각 학과별로 배정된 판매 부스에 찾아가면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다. 프리마켓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모두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 유영빈 학생회장은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지금, 프리마켓을 통해 얻은 수익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리마켓에는 인디 뮤지션들이 섭외돼 행사에 재미를 더한다. 행사에 초대된 뮤지션은 어쿠스틱 밴드 '권우유', '비버의 숙제'이다. 유영빈 학생회장은 "평일에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한 분위기의 밴드를 불렀다. 예대 학생뿐 아니라 우리학교 모든 학생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디밴드의 공연은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프리마켓 행사는 예대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의 성격뿐만 아니라 버려진 물건들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환경 보호의 취지도 가지고 있기에 더



욱 의미가 있다. 이은철(의생활 1)학생은 "입지 않고 옷장 속에서 묵혀두던 옷을 버리거나 아깝고 입기에는 유쾌이 지난 것 같아서 꺼리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예대에서 프리마켓 행사를 진행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처치곤란인 물건도 처분하고 용돈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올해 '과집'의 인기비결은 무엇일까?

이번 봄에는 유달리 'Hansung Univ.'가 쓰인 점퍼가 많이 눈에 띄었다. 과집과, 이른바 '과집'이라 불리는 이 점퍼는 올해 우리 학교 새내기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구입해야만 입을 수 있었지만 2007년부터 모든 새내기들에게 과집퍼가 무료로 지급 되었다. 단대별로 인문대는 녹색, 사회과학대는 파란색, 예술대는 빨간색, 공대는 검은색으로 서로 색깔도 달랐다. 그리고 해가 거듭해질수록 색도 디자인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지급처별 과집퍼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적은 없었다. 올해 과집퍼는 과연 어떤 점에서 새내기들을 사로잡았을까?

이재민(경제 3)학생은 "내가 새내기 때 나왔던 과집퍼는 안과 겉에 보표가 심했는데 이번 것은 그러한 것이 없어 좋아 보인다. 그리고 예전에는 단대별로 색깔이 달랐는데 이번에는 다 같은 색깔이라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느낌이 들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성준경(무

역 3)학생은 "예전 것은 덩고 불편했지만 이번 것은 매우 실용적인 것 같다. 색깔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자칫 혼스러워 보이기 쉬운 색깔이었으나 어디에나 쉽게 어울리는 무난한 검은색을 택한 것 역시 마음에 든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새로 바뀐 디자인과 색깔에 만족감을 표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단대별의 특색이 사라진 점, 소매의 소재가 물들기 쉬운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이호경(행정 2)학생은 "디자인은 만족스럽지만 단대별 색깔이 사라져 단대만의 특색이 사라진 것이 없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주용(지정 1)학생은 "사이즈가 안 맞고 옷의 검은색 부분이 소매에 물드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인혜(영어영문 1)학생은 "학교보다는 단과별로 특색이 더 도드라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현우 기자 hyunwoo@hansung.ac.kr

캠퍼스에서 영어 달인 되기

제1회 한성 영어 캠프 안내

2011년 하계 한성 영어 캠프 강좌

6/27(월)~7/9(토) (총 96시간)

<p>오전 09:00 - 오후 01:00</p> <p>TOEIC 특강 (LC & RC)</p> <p>총 48시간 (하루 오전 4시간 X 12일)</p> <p>유명 토익 전문 강사</p>	<p>오후 02:00 - 오후 06:00</p> <p>영어 회화 집중 훈련</p> <p>총 48시간 (하루 오후 4시간 X 12일)</p> <p>본교 외국인 교수</p>
---	--

※ 두 강좌 동시 수강 가능
※ 오후 토익 강좌 개설 가능 (최소 수강인원 충족 시)

- ▶ 대상 :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 인원 : 토익 반별 30명 4반 / 영어회화 반별 10명 내외 4반
- ▶ 선착순 마감
- ▶ 신청기간 : 2011년 5월 16일(월) ~ 5월 27일(금) 17시까지
- ▶ 신청방법 : 아래 3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완료됨

01 교양영어실 홈페이지에서 캠프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작성, 교양영어실(306호)로 방문 접수

02 신청서 상의 지정 계좌로 예치금 입금
※ 예치금: 강좌 당 5만원(출석률 90%이상 시 예치금 전액 환불) : 실질적 무료!

03 반 배치조사 응시 2011년 6월 24일(금)
오전 10:00 ~ 10:50 토익 특강 (OMR용 사인펜지참)
오전 11:00 ~ 11:50 영어 회화 (외국인 면접)

교양영어위원회 문의사항은 교양영어실(02-760-5935 OR www.hansung.ac.kr/~ecprogra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대신문은 위기에 빠져 있는가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변화해야

독재정권 속에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학생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던 '학보'. 수십년이 흐른 지금 학보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80년대 초반까지 사회 정치적 압축기에 낮은 수준이나 잘못된 체제를 비판하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었던 대학언론은 주 독자인 학생들에게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디어가 발달하고 대학의 분위기도 과거와 사뭇 다른 지금, 대학언론에 대한 학생들의 열독률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대학언론을 지원하는 기자들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대학언론은 표면적으로 볼 때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 대학의 언론사인 '한성대신문사' 역시 그러한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외부적 문제로는 우선 학생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대학 신문이 대학생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조은지(패디 3)학생은 "처음엔 한성대신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우리 학교에 신문사가 있었나?' 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발행이 격주라는 점은 학생들이 신문을 잘 모르는 데 한 몫한다. 신문이 일간지처럼 나온다면 모를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기사의 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박미성 학생은 "한성대신문을 처음 접했을 때 참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너무 미화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담겨있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다. 학생회장을 하며 몇 번의 인터뷰와 함께 정보를 제공하며 신문은 객관적인 사실과 증빙자료가 충분해야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신문사 측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결과만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기자 인력의 확보 문제 등 신문사의 내부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신문사의 인원은 5명이다. 지면 별로 부장을 두지만 지금 부장은 1명만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기별 기자 수급 상황에도 변동이 많다. 취업 경쟁이 심화되며 강의와 과제의 부담에 따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학보사 기자들의 매력도 과거에 비해 줄어든 이유가 가장 크다. 기자 확보 문제는 기사의 질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학언론을 둘러싼 문제들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970~80년대 사회와 달리 현재는 흥미위주의 주간지와 무가치가 범람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학전문지와 인터넷 신문 등으로 대학생들이 접하는 매체의 수가 많아졌다. 또한 오마이뉴스 등 진보적인 목소리를 가진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대학언론의 차별성이 무너진 것도 그 원인이다. 이렇게 사회의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개인화되고 다양화된 대학사회에서 학생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독자들로부터 학보가 외면 받는 이유로 기사의 편향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전국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는 2004년 하계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학보가 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독자들의 바람과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다. (종략) 기사의 편향성은 대학당국과 교수사회에서 학보에 대한 불신을 조래해 학보가 대학행정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학보가 부정확한 기사를 내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악순환이 거듭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대학언론이 재정적으로 학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원인이다. 대부분의 대학언론과 비슷하게 한성대신문 역시 대학당국의 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된다. 이에 학보사는 시중 일간지와 같이 광고나 발행부수 등의 경쟁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형진(경영 4)기자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기에 학보사에선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절실함이 부족해진다. 또한 학교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적 보도에 무리가 있다. 광고 등의 기타 수입원을 만드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학언론은 더 이상 매력 없는 구시대적 유품에 불과한 것일까. 이는 아직 선부른 결론이다. 대학언론이 시대의 분위기에 맞춰 영감을 누리던 시대는 지났지만 인쇄매체만의 무게감과 신뢰감으로 또 다른 임무를 가진다. 대학 내에서 학보의 역할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대학본부와 학생회, 학생간의 중간 지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박미성(경영 3)학생은 "대학생의 입장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언론은 대학신문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예슬 학생은 "학생회의 학기별 예산회의 등 교내 중요한 이슈를 객관적으로 접하기 가장 좋은 매체라고 생각한다. 학생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신문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회와 연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은지 학생은 "그러나 신문이란 매체 자체는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문에서 어떤 단체나 인물에 우호적인 글을 게재하면 독자로서 오히려 의구심이 든다. 일대중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학언론은 신문이 가진 고유 가치를 지키며 지금까지와 다른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한성대신문은 지난 학기부터 학내 취재 지면을 늘리고 레이아웃에 변화를 시도하고 배포할을 추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인터넷과 트위터 등의 미디어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현재 한성대신문사는 지면 신문의 내용을 교내 프레젠테이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매체의 특성에 걸맞은 기사의 신속한 업데이트나 독립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격주로 발행되는 지면의 제한에서 벗어나 쉽고 빠르게 독자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박미성 학생은 "열독을 독려하는 신문사나 학교 측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한성대 신문은 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게 전부이고, 이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학생회나 학생회와 친분이 있는 학생, 학교에 관심이 있는 일부 학생들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신문사 내에서 '언론이란 무엇인가' 등의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강좌 또는 소모임을 개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한 학생들이 정말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이예슬 학생은 "학생들이 알고 싶은 동시대적이고 공감 가는 아이템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배포방식에 변화를 주어 학생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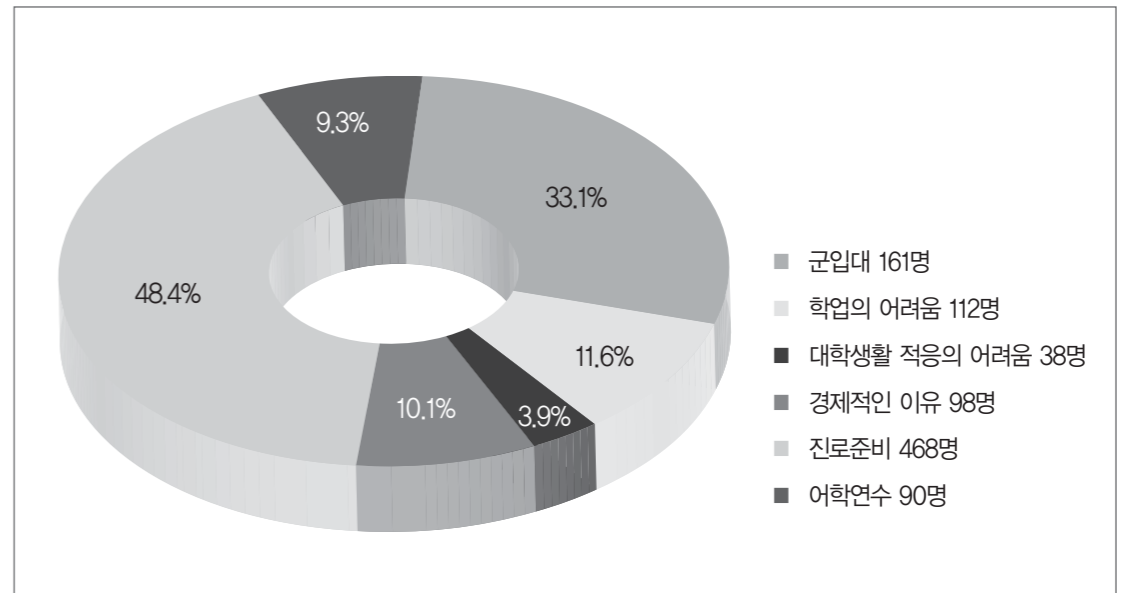
신문의 마케팅적 혁신 외에도 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박미성 학생은 "한성대신문의 기사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느낀 적은 없지만,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대학생의 입장을 표명하고, 학교의 문제를 근심있게 캐내어 잘못된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꼬집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학내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건전한 여론을 조성해야 하는 역할도 학보가 여전히 가져야 할 중요한 의무다. 민주화에서 경제로 사회의 주요 이슈가 변화한 지금 학생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간 교수를 맡고 있는 엄종석(멀티미디어공학과)프레스센터장은 "대학신문이 위기가 보다는 시대적인 조류의 변화에 따른 적응과정으로 보인다. 졸업생들의 동향 등을 파악해 기획보도를 하는 식으로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대학, 사회의 문제를 제일 먼저 느끼고 이슈를 제기하는 데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통계로 본 우리학교

휴학 생각 이유, 진로준비가 제일 많아



우리 학교 학생들이 휴학을 생각하는 이유는 진로준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생활연구 18집(2010)』에 따르면 우리학교 학생 9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로준비 때문에 휴학을 생각해보았다고 답한 학생이 48.4%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군입대 16.6% ▲학업의 어려움 11.6% ▲경제적인 이유 10.1%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진로준비가 36.3%로 제일 많았고, ▲군입대가 22.1% ▲학업의 어려움이 12.7% ▲경제적인 이유가 9.7% 순이었으며 ▲여성은 ▲진로준비가 60.6%로 제일 많았고 ▲어학연수가 14.6% ▲경제적인 이유가 10.6%

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학은 ▲진로준비가 51.2% ▲군입대가 16.7% ▲경제적인 이유가 14.8% ▲어학연수가 10.5%였으며, ▲사회과학대는 ▲진로준비가 52.3% ▲학업의 어려움이 18.8% ▲군입대가 15.3% ▲경제적인 이유가 4.9% 순이었다. ▲예술대학은 ▲진로준비가 44.5% ▲경제적인 이유가 15.2% ▲어학연수가 14.7%, ▲학업의 어려움이 12.3%였고, ▲공과대학은 ▲진로준비가 44.4% ▲군입대가 25.1% ▲어학연수가 10.0% ▲학업의 어려움이 9.2%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진로준비 때문에 휴학을 생각했던 학생이 제일 많았고, 여학생과 사회과학대 학생들이

특히 진로준비 때문에 휴학을 생각했던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정주용(지정 1)학생은 "여성은 아무래도 군 휴학을 안 할 테니 상대적으로 진로에 대한 휴학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으며 박정빈(경영 1)학생은 "최근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무조건 좋은 대학만을 찾는 풍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세준(기계 3)학생은 "학교 공부만 해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 본다. 자격증과 어학능력을 요구하는 기업이 대다수고 학교공부와 그것들을 병행하기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현우 기자 hyunwoo@hansung.ac.kr

대학만평

이주영(애니제품 4)



저희가 지켜보고 있어요 교수님... 수.수



시작해 ~ 내인의 대변인으로서!!

“합격시 전원·전학년 장학금 지급!”

2011년 육군 대학 軍 장학생 모집

스마트폰은 QR코드를 읽어주시면 육군모집에 대한 지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public of Korea Army

지원자격

- 연령: 입원일 기준 만 20 ~ 27세 남성
- 학력: 4년제 대학 학군합격이 되어있는 1, 2, 3학년 친권자의 동의와 재정보증보험가입 가능한자

지원서접수

- 인터넷육군모집 홈페이지 접수
- 서류제출(육군 인사서령부)

모집기간 · 2011. 5. 2 ~ 7. 8

선발절차

- 1차: 필기평가, 서류전형
- 2차(최종): 대학성적,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복무기간

- ROTC: 6년 4개월
- 학사장교: 7년

대우 및 특전

- 매학기 장학금 지급
- 의무복무기간+장학금수혜기간 추가 복무
- ROTC(지원사) 및 학사장교로 입관
- 국내 민간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 기회 부여 (장기복무선발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기회 부여(장기복무선발자)

문의처 및 모집안내

- 각 대학 학군단
- 육군 인사서령부 선발담당관: 02-505-7144 / 042-550-7144
- 육군대표전화: 1588-6953(육군으로 오심)
- www.goarmy.mil.kr (육군모집)

육군본부

www.goarmy.mil.kr (육군모집)

전국대표: 1588-6953

NAVER **7444** 육군모집

장학금의 역설, 장학금도 잘 사는 학생이 받는다?

저소득층 1천억 원 지원하는 '우수드림장학금' 도 계속 진행될지 미지수

장학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공부 잘 하는 학생, 성실한 학생, 열심히 하는 학생이 받는 것'이다. 하지만 장학금의 본래 취지는 '주요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다. 장학금의 본래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보조해주는 다른 학생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에 팽배한 인식은 "성적이 우수한"에 맞춰져 있다.

2008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장학금의 77.2%를 차지하는 교내장학금 중 학비지원액 비중은 64.3%에 이른다. 장학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적 장학금이 학생들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성적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저서를 통해 "등록금이 폭등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성적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원 방식은 장학금의 본래 취지를 점차 왜곡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정작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지만 장학금이 없어도 괜찮은 '부자' 학생에게 돌아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며 현 장학 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김지인(무역 3) 학생은 "용돈을 벌어야 생활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학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적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필수 있으면 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소윤(한양대 문화컨텐츠학부 4) 학생도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주일에 5일 이상 과외를 해야 했던 적이 있었다. 과외를 하는 학생의 집은 학교에서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었다."며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두 경우 모두 장학금을 받기는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받았던 장학금 액수가 더 작았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아무래도 학업이 주는 부담감이 하지 않을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심리적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또한 그는 "학과 특성상 아이디어를 내거나 현상을 분석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 공모전을 준비해야 하거나 조별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과목이 많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몇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말했다.

김지혜(영남대 법학과 4) 학생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이 그 학생이 내 주변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찾아 보기가 힘들다. 학교에서 근로하면서 성적 장학금을 받는 몇몇 친구들은 있지만 그 친구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장학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약 1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우수드림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드림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일정수준 이하인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본래 장학금의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다. 약 1만 9천여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학교 장학담당자 전민우(학생지원팀)

팀원은 "실제로 59명의 학생이 우수드림 장학금을 받고 있고, 이 금액은 1억 2천5백만원에 달한다.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평균 학점은 4.0 이상"이라고 우리학교 실정에 대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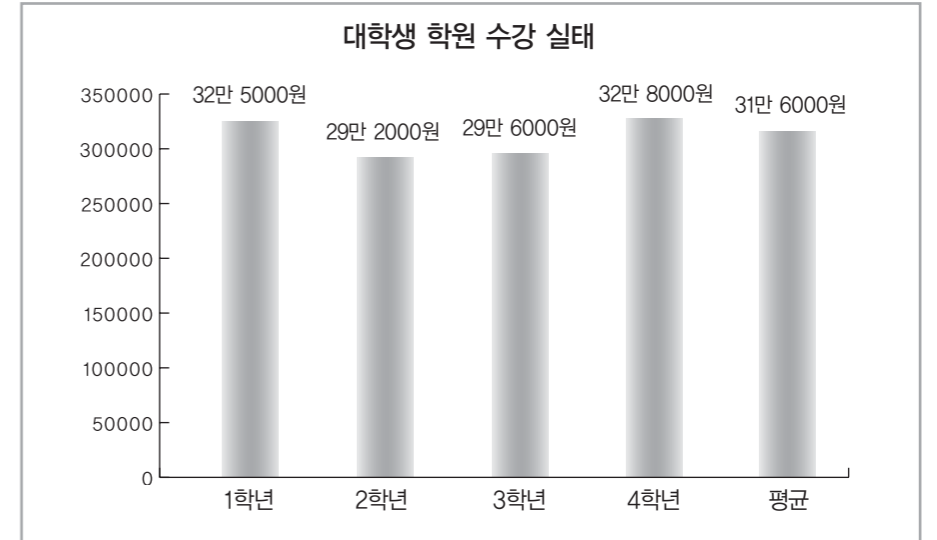
현재 숙명여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위 1%에 드는 신입생에게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한양대는 입학성적 우수자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해외 유명대학 박사학위 취득시 교수인용 우선권을 주겠다고 나섰다. 대학 장학금 정책이 본래 취지인 경제적 곤란자에 대한 학비지원 역할은 퇴색되고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나마 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가장 알맞은 사업인 '우수드림장학금'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시행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에 이미정(한국공학대) 상담원은 "아직까지 우수드림장학금 사업이 꾸준히 시행될지 단기 사업으로 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단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이번 2학기 때까지는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점이다."고 말해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김하늘 기자 blue dreams@hansung.ac.kr

통계로 본 한국사회

대학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대학생 사교육비 월 31만원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평균 31만원의 학원비를 매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인 알바몬이 전국의 대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학원 수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31만 6000원의 학원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년별로는 4학년 학생들이 월 평균 32만 8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뒤이어 1학년이 32만 5000원, 3학년이 29만 6000원, 2학년이 29만 2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학원에서 주로 수강하는 과목으로는 '영어 문법 및 회화'가 2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컴퓨터학원' (15.3%), '제2외국어 문법 및 회화' (9.7%), '전공분야 관련 자격증' (9.1%), '국가고시·시험 대비 학원' (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이유로는 '자기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라는 답변과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전수가 당장 필요해서'라는 답변이 30.1%로 나란히 1위를 차지했으며 '취업 준비를 위해서'라는 답변은 25.2%로

조사됐다.

한편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과외가 취업 경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을 위해 '학원 강의 수강 등의 취업과외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63.1%의 과반수를 넘는 응답자가 '하지 않는 편보다 낫다'라고 답변했고 19.5%의 학생들이 '취업과외는 꼭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학점관리와 등록금, 취업과외까지 오늘날의 대학생은 이고 가야할 짐이 너무 많다. 입시전쟁은 취업전쟁으로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토익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 김후결(경영 3) 학생은 학교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솔직히 시설학원이 더 전문적으로 잘 가르칠 것 같아 학교 프로그램에 애초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도 방과 후 교육, 취업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야 할 때다.

오지영 기자 gujyomee@hansung.ac.kr

뱅크시 팬 사이트, 쥐20 한국인 구명운동 나서

민사소송 정도의 사건에 너무 심한 처사



뱅크시 팬 사이트에서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던 한국인의 구명운동이 일어나 화제다.

뱅크시 팬 사이트(http://ratseverywhere.com)

com)에서는 4월 29일부터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구속된 박정수씨의 구명운동을 벌였다. 이 구명운동의 계기는 한국인 대학생이 뱅크시 팬 사이트로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이었다.

런던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알려진 이 대학생은 이메일에서 박씨가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었다는 이유로 체포당했다는 것을 알리며 그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박씨가 반달리즘* 행위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 쥐 낙서에 대해 조사하던 중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거라 확신 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에 뱅크시 팬사이트는 그의 이메일과 코리안 타임즈의 G20 포스터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그래피

티는 예술의 하나이며 단순한 벌금이나 민사소송 정도의 사건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같은 법무부 장관에게 구명에 대한 의견서를 이메일과 우편으로 보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민규(지정 1)학생은 "구명운동을 하는 이유가 공감이다. 작품의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작품에 정치인들의 비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수씨는 지난해 10월 31일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었고 경찰은 이를 공안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세 달에 가까운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경찰은 박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함께 가담한 3명을 기소유예 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구형 하였으나 지난 13일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사실을 일부 기각하며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뱅크시는 영국의 그래피티 작가이며 얼굴 없는 작가이다. 스스로 무정부주의자라 말하는 그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들을 주로 다루며 불법으로 길거리에 낙서하는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05년 3월부터 뉴욕 근대미술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등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걸어놓는 게릴라 전시를 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반달리즘 : 다른 문화나 종교 예술 등에 대한 무지로 그것들을 파괴하는 행위.

박현우 기자 hyunwoo@hansung.ac.kr



제6회 한성교내 영어 스피치대회

- 접수 기간 _ 2011년 4월 18일 ~ 5월 15일
- 본선 대회 _ 5월 20일
- 대 상 _ 한성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포함)
- 주 제 _ 자유
- 형 식 _ A4 2장 (hwp 기준,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
- 제출 방법 _ 참가자 원서, 스피치 원고 직접 제출 혹은 e-mail 제출 (pianaly@hansung.ac.kr) (*5월 15일까지 참가지원서와 스피치 원고 제출)
- 상 금 _ 최우수상 : 상장 및 상금 30만원
우수상(2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문 의 _ 한성대 영자신문사 제 1별관 301호(우체국 건물)
☎ (02) 760-4195, 편집국장 010-9045-6826

- * 타 영어 스피치대회 참가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 참가지원서 양식은 한성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스피치원고를 바탕으로 예선심사가 있으며, 그에 따라 본선대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상자는 참가자의 수와 작품의 질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 본선대회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 대회 참가자가 아니라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대회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주최 : 한성대학교 영자신문사 / 후원 : 한성프레스센터

도덕적 의무냐? 최대 다수의 행복이냐?

공리주의와 칸트주의 사이의 딜레마

당신은 철로를 바라보며 다리 위에서 있는 구경꾼이다. 저 아래 철로로 고장 난 전차가 들어오고, 철로 끝에 인부 다섯 명이 있다. 전차가 인부 다섯 명을 들이받기 직전이다. 문득 당신 옆에서 있는 덩치가 산만 한 남자를 발견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 전차가 들어오는 철로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남자는 죽겠지만 인부 다섯 명은 목숨을 건질 것이다.

위 내용은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지음/김영사)에 등장하는 딜레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옳은 것일까? 덩치 큰 남성을 밀면 인부 다섯 명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살인을 해야 한다. 반대로 덩치 큰 남성을 밀지 않으면, 당신은 살인의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다섯 명의 인부를 못 본척한 셈이 될 것이다.

여기서 덩치 큰 남성을 밀지 않는 것은 살인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입각한 선택이다. 이런 도덕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을 칸트주의라 한다. 반면에 다섯 명의 인부를 살리는 것은 최대 다수를 우선시하는 선택이다. 이렇게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증시하는 것을 공리주의라 한다.

칸트주의와 공리주의는 두 개념이 발생한 이래로 계속 충돌했다. 두 개념은 어떤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정의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위와 같은 딜레마가 생겼기 때문이다.

칸트주의의 발생 배경에 대해 이종진(교양과)교수는 "모든 윤리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를 뛰어넘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다. 1785년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원론』이 등장하기까지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속에 철학적 기반을 넓혀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풍조에 변혁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칸트였다.

물론 칸트가 갑자기 이런 변혁을 이룩한 것은 아니었다. 칸트 이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기존의 철학에 의문을 제기했고 조금씩 변혁을 이루었다. 그 노력이 축적되어 '인간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인간에 대한 고찰만이 선악의 보편적 기준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칸트 역시 인간에 주목했다. 그 결과 진정한 선에는 이유를 달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렇게 이유와 조건 없이 선이 되는 것들을 칸트는 정언명령이라 명명했다. 앞서 말했던 상황에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언명령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언명령은 이유나 단서를 제시하려고 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도덕적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것은 그 자체로 선택 존재자의 무인 것이다.

칸트주의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 자체를 선이라고 생각했다면, 공리주의는 선과 이익을 동일시했다. 이런 공리주의는 벤담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벤담은 인간이 가지는 쾌락을 수치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수치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했다. 말 그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것이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의미가 단순한 최대 이익의 추구는 아니다. 이에 대해 이종진 교수



는 "벤담이 도덕적 행위자에게 요구했던 것은 '나의' 최대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최대 이익이다. 따라서 나의 행위는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리주의 윤리학은 최대이익의 윤리이기보다는 차라리 최대다수의 윤리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공리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너무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고 우리의 이익에 대해 고찰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수를 먼저 생각하는 특성 때문에 공리주의는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칸트주의와 공리주의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것이 더 선에 가깝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두

관점 모두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종진 교수는 "두 이론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전문 이론가들에게 맡겨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 둘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나은 윤리학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들의 과제이지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이론의 차이를 명백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 일상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선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관점들을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비로소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건들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동양화 스토리

풍류로 다시 태어나는 듯



▲ 이경운 「월하탄금도(月下彈琴圖)」- 견본 수묵, 31.2×24.9 cm,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옛 선비들은 자연과 더불어 풍류를 즐기는 것을 선비들의 기본적인 교양처럼 여겼으며, 또한 그것은 인격 수양의 중요한 방편이기도 했다. 풍류에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호젓한 장소에서 혼자 즐기는 풍류가 있다. 그런데 혼자 즐기는 풍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문고였다. 거문고가 시(詩), 주(酒)와 함께 풍류 생활이 필수적인 요소로 사랑을 받았던 것은 그것이 선비들에게 있어 단순한 악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옛 말에 이르기를 거문고는 악(樂)의 으뜸이라. 군자가 향시 사용하여 몸에서 떠나지 않는 다 하였다." 또 시서금주(詩書琴酒)로 대표되는 여러 풍류 중에서 "마음의 번민을 씻어주는 데 거문고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는 고산(孤山) 윤선도의 음악 편지를 비롯, 선비들이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거문고를 어루만진 일상의 기록들이 많은 문헌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거문고를 금(琴)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바른 것을 지켜서 스스로 금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즉, 거문고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것을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읽고 난 뒤 정의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동학농민운동'은 일제 시대에 '동학난'이라고 불리며 나라를 망치려는 역적무리로 취급받았다. 언젠가 정의를 위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에 대해 선불리 답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고민을 하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것은 군자는 악도(樂道)를 얻으려는 것이고, 소인은 그 악음(樂音)을 욕망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공자는 음악은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음악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좋아하고 있는 것만 못하고, 또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옛 성현들이 거문고를 즐기는 뜻은 단순한 기예(技藝)의 연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도를 배우고 터득하는 데 있었다.

일반적으로 정몽 회화가 화가의 개성적인 창의성보다 동시대 사람들의 공통된 의식이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월하탄금도」는 이경운 개인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배후의 화의는 어디까지나 그를 포함한 당시 선비 계층의 공통된 의식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면의 주인공은 이경운의 손을 빌렸으며, 당시 선비들의 공통된 정신 세계가 반영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거문고 하면 탄금대가 생각이 난다. 임진왜란 당시 신립(申飭) 장군이 8,000여 명의 군졸과 함께 이곳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적의 무리를 맞아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벌였으나 열세의 군력으로 천추의 한을 품은 채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곳이다. 탄금대는 음악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 가솔왕의 깊은 총애를 받은 우륵이 악기를 연주하던 곳이기도 하다. 탄금대 아래쪽에는 우륵이 제자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다가 쉬던 휴궁포가 있고 강 건너 마을에는 우륵이 탄금했던 소리가 들렸다고 전해져 청금대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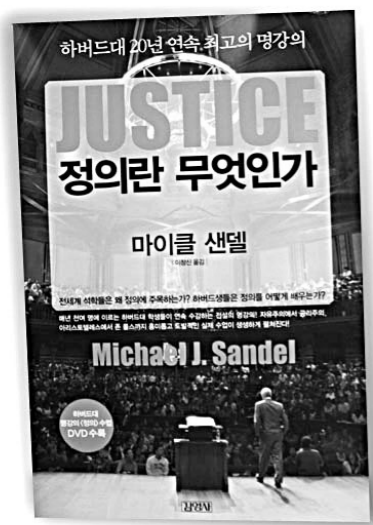
이경운의 「월하탄금도」는 마치 신립장군의 통한을 넘어 풍류의 선율을 다시 태어나는 듯하다.

이근우 / 호 전선대학교 대학원 강사

학술서평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란?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김영사



2500년 전 플라톤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국가』를 시작했다. 그리고 정

의에 관한 논쟁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정의란 무엇일까? 나쁜 악당들을 무찌르는 슈퍼 히어로가 정의의 수호자인가?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존 롤스의 정의론까지 수많은 예시를 들며 정의의 정체를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하지만 명쾌하게 '정의란 무엇이다'라고 정답을 주지는 않는다. 저자는 공리주의를 옹호하는 듯 하다가도 그에 대한 반박을 던지고 또 반박에 대한 반박을 한다. 이 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든다.

저자가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으로 요약되는 공리주의가 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행복의

양을 따져 그 가치를 비교한다. 즉 '큰 공리는 작은 공리보다 좋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모두가 쾌락을 누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소수의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 문제는 소수의 피해비용에 인간의 기본권이 포함되는 경우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자유지상주의이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선택은 그 어떤 이유로도 외부로부터의 강압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금전적인 이유로 장기매매를 해도 개개인은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의지에 의한 일이라면 정당하다고 해석한다.

마지막 관점에서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자는

이 방식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를 제안한다. 이 방식은 도덕이 시민의 삶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것을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읽고 난 뒤 정의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동학농민운동'은 일제 시대에 '동학난'이라고 불리며 나라를 망치려는 역적무리로 취급받았다.

언제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에 대해 선불리 답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고민을 하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지영 기자 gujyomee@hansung.ac.kr

3. 교육내용 및 일정

- 일 정 : 2011년 5월 26일 (목) ~ 2011년 5월 27일 (금), 2일간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구분	교육 내용					
시간	09:30 16:30	10:30 18:00	11:30	12:30	13:30	14:30 15:30
1일차	오리엔테이션	한글이력서작성면접의 유형과 전략 강의	중식제공	영문이력서작성 영어인터뷰강의		
2일차	10:00 - 17:00 [6명씩 7class time (각 time당 1시간)] 11:30 - 18:30 [11 및 중점의 후 30분간 연습 3명씩 그룹으로 실전 모의면접]					

4. 참가대상 및 준비사항

- 대 상 : 한성대학교 경영학부 재학생
- 비 용 : 무 료
- 준 비 물 : 이력서 / 면접서 각 1부씩 (클리닉과정에서 필요)
- 신 청 기 간 : 2011년 5월 20일(금)까지, 선착순 25명

* 1일차는 자유복장, 2일차에는 정장 혹은 이에 준하는 복장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당일 강의가 있는 경우, 출석인정확인서 발급해드립니다.

5. 위치안내 (강남 파고다타워 7층 이벤트홀)

- 교육장으로 찾아가는 법
- 장 소 : <http://www.pagoda21.com/academy/gangnam/map.do> code=80
- 대표 전화 : (02) 2051 - 4000
- 이 메 일 : kpagoda@pagoda21.com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6 파고다타워 7층
- 지 하 철
- 지하철 2호선 강남역 6번출구
- 버 스
- 1) 9400, 9404, 9405, 9406, 9408, 9409, 9410, 9411, 9412, 9503, 9700, 1150
- 2) 140, 144, 400, 402, 420, 470, 471 4312, 4417, 4420, 4421, 4422, 4424, 5412
- 3) 서초03, 서초10, 서초20, 서초24

*** 문의사항은 경영학부 사무실 (02-760-4047)로 연락바랍니다.



1. 업체 : PAGODAscs

2. PAGODAscs 와 함께하는 영어 취업 특강

2011년 사회과학대학에서는 [PAGODAscs]와 협력하여 영어취업특강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서는 1일차에 국문이력서작성 면접유형과 전략 및 영문이력서 작성과 인터뷰 이론교육을 실시하며 2일차 교육에서는 전문강사의 영어면접 대비 1:1 맞춤 첨삭지도 및 실전 대비 모의 면접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예비 졸업자들의 영어 이력서 및 인터뷰에 대한 사전준비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취업성공률을 높이고 일방적인 강제가 아닌 시습과 1:1 교정을 진행함으로써 짧은 학습시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킨 맞춤형 취업특강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사 설 |

자신의 판단 기준을 세우자

요즘 TV를 보면 맛집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다. 음식 맛을 보고는 출연자들이 '맛있다.' 또는 '내가 맛본 최고의 맛이다.'라는 요지의 찬탄을 하고 음식집 주인들은 자기만의 요리 비법을 말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은 비슷비슷하다. 그저 달라지는 것은 프로그램마다 다루는 음식집의 이름과 메뉴 정도가 아닐까 싶은 정도다. 유명 관광지에는 '맛집 방송에 나오지 않은 집'이라는 간판을 단 음식점이 생겼을 정도로 한집 건너 맛집이다.

그런데 얼마 전 오 감독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트루맛쇼'라는 다큐멘타리를 통해서 맛집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폭로했다. 이 감독은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음식점을 차리기도 했는데, 그 음식점은 방송의 맛집 프로그램에 두 번이나 소개되었다고 한다. 메뉴도 손님이 음식맛의 비법도 다 홍보 대행사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 다큐멘타리는 수많은 맛집 소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느꼈던 '무슨 맛집이 저렇게 많냐?'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면서, TV 프로그램의 평가에 휩쓸렸던 우리의 모습에서 씩씩함을 느끼게 한다.

도대체 왜 맛집 프로그램들이 판을 치고, 뒷받침 주면서 음식점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려고 했을까? 이 이유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의 우리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트루맛 쇼의 감독은 방송에 소개하기 위해 고추 돈가스라는 메뉴를 정하고, 극한의 매운 맛을 보여주기 위해 독한 캡사이신 원액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맛을 만들어 냈는데, 방송이 나간 후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매운 맛 동호회에서는 그 음식을 먹어 보자는 결의까지 했다고 한다. 한번 방송에서 맛

집으로 소개되면 사람들은 일단 그 집은 맛있다고 믿으면서, 설사 그 집 음식이 내 입에 맞지 않아도 내 입맛이 문제지 그 집 음식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은 동조 현상이라는 심리학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살아가면 그 집단이 지닌 규범에 따라 처음에 자신이 지녔던 태도나 신념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고 태도와 신념 그 자체를 변형시키기도 한다. 동조화 현상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인 애쉬(Asch)의 실험에서, 오답을 말하는 공모자들과 함께 실험에 입한 피험자들은 카드에 그려진 선 중 같은 길이의 선을 맞추라는 간단한 과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규범을 익히고 이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개성의 말살이나 사고력의 고갈로 이어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 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우리는 사회 현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이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손쉽게 접하게 된다. 그렇지만 대중 매체를 통해 획득한 타인의 의견은 그저 타인의 의견일 뿐, 그것이 내 판단은 아니다. 최근 베스트셀러 중에 IQ 173의 천재였지만 선생님의 실수로 IQ 73의 지능으로 알려지면서 17년 동안이나 바보로 살아왔던 인물을 다룬 '바보 빅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요즘 사회의 현실을 우화적으로 보여준다. 정보화 사회, 대중 매체 사회의 모습은 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이에 따른 나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바보 빅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의 화 정



이병은 교수 (영어영문학부)

얼마전 한 유명인이 강연회에서 "내 나라 내 땅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자량이 될 수 있지만, 못하는 것은 수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라는 말을 했다. 말을 들었다. 언뜻 들으면 우리말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강대국의 언어에 대한 숭배에 가까운 시대주의적 태도를 비호는 통렬한 촌철살인 같은 말로 들린다. 그러나 그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 중 중고생을 비롯한 젊은 학생들이 자칫 이 말을 곡해하여, 영어에 대한 학습태도에 잘못된 자세를 가지게 되거나 않을 까하는 우려도 해본다.

우리 시대의 영어라는 언어의 위치를 생각해보자. 기사들이 등장하는 아득한 옛날 중세시대부터 유럽의 각국은 정치, 경제,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쉽게 소통하고 협력하였는데,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각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라틴어라는 고대언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틴어는 어느 나라에서도 실생활에 쓰이는 언어는 아니었지만, 유럽을 연결해주는 공용어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었다. 대학에 있는 우리에게 당시의 대학 문화도 관심거리일텐데, 12세기 경부터 건립된 이탈리아의 살레르노, 볼로냐,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뿐만 아니라,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말

영어를 위한 단상(斷想)

은 르네상스 시대부터의 대학에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생들이 있었다. 젊은 유럽의 지성인들이 라틴어라는 도구 때문에 당시의 발달된 문명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계 공용어로서의 라틴어의 역할은 19세기 이후부터 다하였고, 그 자리를 영어가 서서히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도 약간의 국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영어를 대신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제 영어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 간의 국제회의에도 중개어로 사용된다. 더욱이, 영어는 현대사회의 지식의 창고인 인터넷 정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제 전공이 무엇이건 간에 영어 없이는 글로벌한 사회에서 소통하기 힘들어졌다.

또한, 인도가 과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경제적 위치에 올라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나 혼자만의 의견은 아닐 것이다. 영어를 사용하였던 홍콩과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였던 마카오의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이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면, 실용적 언어 수단이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상까지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지나친 영어에 대한 집착은 골불견이다. 하

지만, 자기 지식의 장래를 위하여 여의치 않은 집안 살림에도 저지 않은 돈을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의 부재가 아니라, 지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 사랑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든든한 초석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수치스럽다'는 것은 능력, 자질과 철학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 게으름과 어리석음에 대한 비난이다. 물론 영어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 일 부러 배우지 않는 학생들은 논의이고, 오히려 그 소신에 찬사를 보낸다. 영어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문제지만, 해결할 방법은 되지 않는다. 무료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도서관과 온라인상에 널려있다. 특히 우리 대학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영어교육의 기회가 타교에 비하여 무척 많다. 이번 여름방학 중에도 본교 외국인 교환생들과 유명 영어강사들의 무료 영어 특강이 여럿 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고, 교육을 소홀할 능력이 있고, 더욱이 영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학생들이 영어를 못한다면,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은 너무 지나친 꾸짖음이 아닐 수 없다.

450호를 읽고

1. 450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나는 병역을 거부합니다"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불법 행위, 병역기피라는 오해와 색안경을 끼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무를 마친 젊은이들 또한 뼈뼉한 시선을 보내는 마참가져서 이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입장이 매우 어렵다.

이런 때에 "나는 병역을 거부합니다" 기사 간략하나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그들의 신념과 행동을 편견없이 이해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으리라 생각해 상당히 평가한다.
덧붙여 관련 도서를 추천함으로써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어 좋은 기사라고 생각된다.

2. 450호에서 가장 아쉬웠던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캠퍼스 커플에 대해 굳이 지면 전체를 할애해 대대적인 보도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더구나 대학의 아카데미즘 정신과 학문의 의식반는 때에 대학의 낭만과 꿈 연애와 커플로 단상화 짓는 듯한 인상을 주어 부적절했다고

보여진다. 단순한 가십 외에 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또한 CC의 장단점을 다룬 도식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을 법한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해 신선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덧붙여 인터넷 및 명소 소개 또한 특별한 경우나 사례 조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지 많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3. 한성대신문에서 다뤘으면 하는 아이템은 무엇인가?

여름은 다가오고, 여성들의 남모름 고통은 배가된다.
얼마전 낙메에서 지적한 '여성생리 곤경제도'에 대해 보도해 보면 어떨지 제안해 본다.

4. 취재면, 사회면, 학술면, 문화면, 기획면 등 각 면을 평가해주세요

- 취재기획면 : 전공-적성 불일치에 그에 따른 전문성 저하로 인한 문제와 그 의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전공과 적성이 불일치되는 근본적인 까닭에 대한 심층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 예를 들면 초종교로 이어지는 주입식,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제대로 파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

았다든 점, 또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되지 않은 무수한 요소에 대해 서러든지, 말미에 상담사의 인터뷰를 실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려 했지만 실상 누구인가 알고 있는 것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듯 보인다. 취재기획이라면 문제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수반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본다.

- 학술면 : 뛰어난 함축력과 폭넓은 정서세계의 아름다움을 지닌 한시지만 다소 고리타분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줄곧 젊은이들의 냉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때에 한시로 이루어진 학술면의 일련의 기사들은 한시와의 거리를 좁혀주는 효과와 더불어 독자들에게 교양을 살피우고 여유를 되찾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참 좋았다. 또 한시감상의 여러 포인트(ex-에 주목하여 읽어보기)를 지적해주어 그 이해를 돕고 한시라는 동양적 지적 자산을 통해 학문의 은고지신 정신을 되새기게 하여 아주 만족스러운 보도였다.

- 문화면 : 아는 것이 힘이다. 이는 만큼 보인다고 격언처럼 우리 고유의 술에 대해 다소 일련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무지의 깨우쳐주고 우리 술이 국제시장에서 얼마간의 경쟁력을 자랑하는지에 대해 알게 해주어 우리 것,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는데 일조했으리라 본다.

5. 사진의 크기, 기사의 자 크기, 헤드라인, 컬러 등 디자인적인 면은 적절했나요?

- 450호는 다소 통계자료가 많아 복잡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배치되어 전달력이 우수했다고 생각된다. 많은 사진자료도 적절하게 실어져 무난하고 문제가 없었음.

다만 약간의 오타와 편집적오가 눈에 띄어 주의를 요한다.

6. 450호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종합해 의견을 정리해주세요

450호의 가장 큰 주제인 캠퍼스 커플 기획이 개인적으로 가장 불만족스런 기사였기 때문에 매우 우수했던 지난호와 비교했을 때 언론의 퀄리티가 저하된 느낌이다.
취재기획면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일련의 문제(대학생의 우울과 전공-적성 불일치 등)만 나열해 각인되었을 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안에 대해 언론으로서 기여한 바가 저조한 듯 보인다. 재미있고 유익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학술면과 문화면으로 학보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할까?

김미래 (역사문화 4)

독자투고-개인칼럼

조은지 (패디 3)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취업준비생 올리는 '다단계'

요세 취업격저이 날로 높아만 가는 데 이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미끼로 취업준비생들을 꼬여내는 다단계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다단계가 좋지 않은 것임을 알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에 대해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다단계의 본래 이름은 '피라미드'였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부작용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다단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피라미드라는 이름에서 다단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후로 그들은 자신들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위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다단계는 주 고객 없이 애꿎은 회원들에게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 사람이 물건을 생산자에게서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 마진을 붙여 고객들에게 물건을 파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도매와 비슷하다.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피라미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단계의 방식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다단계에는 기본적으로 윗 회원과 아랫회원이 있다. 윗 회원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거지 설명으로 아

한성대신문사에서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며 느낀 행정 및 복지시설에 대한 불편한 점, 공개기구 또는 학생회에

의 건의사항, 학우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 등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을 주제로 한 글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금은 한성대신문 여론면에 실립니다.
한성대신문사는 교내 구성원들의 솔직한 고 참신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원고매수 : 5매(이미지 포함) 7매(이미지 미포함)
- 마감일자 : 6월 1일(수)까지
- 투고대상 : 한성대신문을 읽는 교내 모든 구성원
- 혜택 : 신문에 독자투고자 실린 분께 소정의 원고료 제공
- 투고 주제 : 학교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좋은 점, 아쉬운 점, 건의사항 등
- 투고방법 : 이메일 press@hansung.ac.kr
-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 021760-4186 편집국장 : 010-7124-5831

한성대신문사

어떤 젊음은 현실에 굴복하고

어떤 젊음은 '성공한 미래'를 만난다

미래에 대한 답답함이 깊어질수록 한성대 대학원의 빛이 보일 것일다. 막연한 성공이 아니라 성공의 '어제'를 기르자는 한성대 대학원 - 세계적인 교수진으로 구성된 실용주의 커리큘럼과 차별화된 장학혜택으로 지금, 한성대 대학원에서 존경 받는 성공기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2011학년도 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 1. 일반대학원(주간)** 문의전화 021760-4271
 - 박사과정**
 - ▶ 한국어문학과 / 국어학, 국문학, 한국어교육, 문화콘텐츠
 - ▶ 영어영문학과 / 영문학, 영어학
 - ▶ 사회학 /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 ▶ 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이전학기 모집없음)
 - ▶ 경영학과 / 인사·조직관리, 재무관리, 사비시스템경영,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 ▶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이전학기 모집없음)
 - ▶ 무역학과 / 국제무역실무, 국제경제학, 국제경영학
 - ▶ 경제·부동산학과 / 경제학, 부동산경제학, 부동산학-이전학기 모집없음)
 - ▶ 산업경영공학과 / 모델링시스템리전, 경영공학, 생산-품질경영, 인연 및 인공공학
 - ▶ 정보컴퓨터공학과 / 멀티미디어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시스템공학
 - ▶ 미디어디자인학과 / 시각·영상커뮤니케이션, 애니메이션·게임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10론
 - ▶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 매·디자인컨설팅, 컨버전스컨설팅
 - 석사과정**
 - ▶ 한국어문학과 /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한국어교육
 - ▶ 사회학 /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 ▶ 영미문화학과 / 영문학, 영미문화콘텐츠, 영어교육
 - ▶ 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이전학기 모집없음)
 - ▶ 무역학과 / 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무역실무
 - ▶ 경영학과 / 인사·조직관리, 재무관리, 사비시스템경영,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 ▶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이전학기 모집없음)
 - ▶ 경제학과 / 경제학, 부동산경제학
 - ▶ 산업경영공학과 / 산업경영공학
 - ▶ 멀티미디어학과 / 멀티미디어공학
 - ▶ 컴퓨터공학과 / 컴퓨터공학
 - ▶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공학
 - ▶ 정보시스템공학과 / 정보시스템공학
 - ▶ 기계시스템공학과 / 기계시스템공학, 산업위생공학
 - ▶ 회화과 / 동양화과 전통화, 서양화, 목공예제, 서진
 - ▶ 의류패션산업학과 / 의복구성 및 디자인, 의류과학, 복식사 및 패션마케팅
 - ▶ 무역학과 / 무역개론, 무역이론
 - ▶ 미디어디자인학과 /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커뮤니케이션디자인, 디자인10론
 - ▶ 디지털문화기술&콘텐츠학과 / 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 ▶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
- 2. 특수대학원(야간)** 문의전화 841원참조
 - 경영대학원(석사)** 021760-5844
 - 경영학과 / 경영관리
 - 호텔관광경영학과 / 호텔경영, 관광경영, 외식경영
 - 디지털미디어비즈니스학과 / 디지털미디어비즈니스학
 - 행정대학원(석사)** 021760-5845
 -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실버산업, 사회복지상담
 - 경찰행정학과 / 경찰행정학
 - 중독재활학과 / 치료재활, 중독연구 021760-5859
 - 예술대학원(석사)**
 - 패션디자인학과 /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패션프로모션 021760-4097
 - 뷰티예술학과 / 분장예술, 헤어디자인, 뷰티에스테틱, 뷰티소재학 021760-5740, 5970
 - 국립현대대학원(석사)** 021760-4318
 - 인보전략학과 / 국제인보, 국경정책, 군사전략
 - 국방경영학과 / 국방경영
 - 국방M&C학과 / 국방M&C학
 -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석사) 021760-5957
 -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 매·디자인컨설팅, 컨버전스컨설팅
 - 부동산대학원(석사) 부동산자금운전, 부동산평가전문, 부동산개발 및 관리전문, 지적 및 토지관리전문, 풍수지리전문 021760-5876
 - 교육대학원(석사) / 교육행정전문, 상담심리전문, 유아교육전문, 국어교육전문, 역사교육전문, 영어교육전문 021760-5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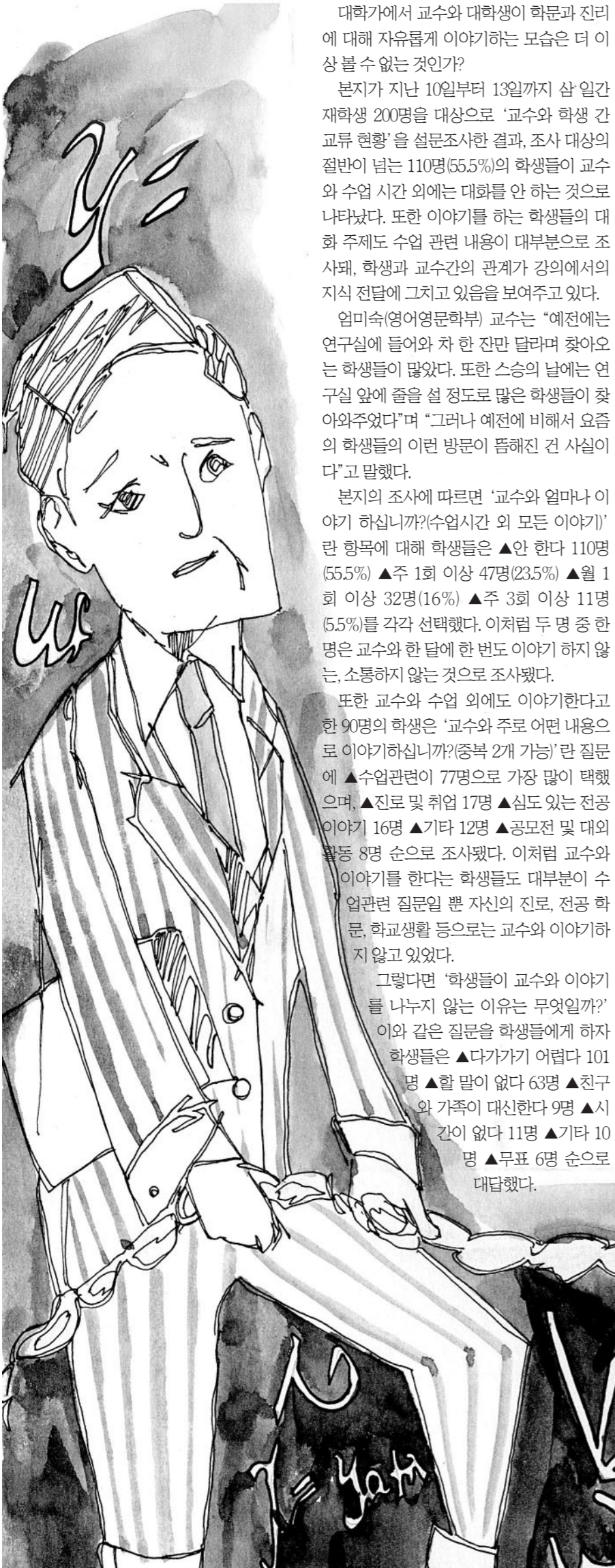
원서접수 및 발표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1.5.16(월)~5.24(화)
 - [토, 공휴일 제외] 단 인터넷접수 시 공휴일도 가능]
 - 접수처: 본교 학생관 2층 대학원교과팀
 - 면접일정: 2011.5.28(토) 10:00 ~ 화요일 변동가능
 - 합격발표: 2011.6.15(수) 14:00 이후 대학원홈페이지(http://gs.hansung.ac.kr)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136-792 서울시 성북구 삼동동 271-388 http://gs.hansung.ac.kr

침묵의 미덕이 넘치는 교수와 대학생



대학가에서 교수와 대학생이 학문과 진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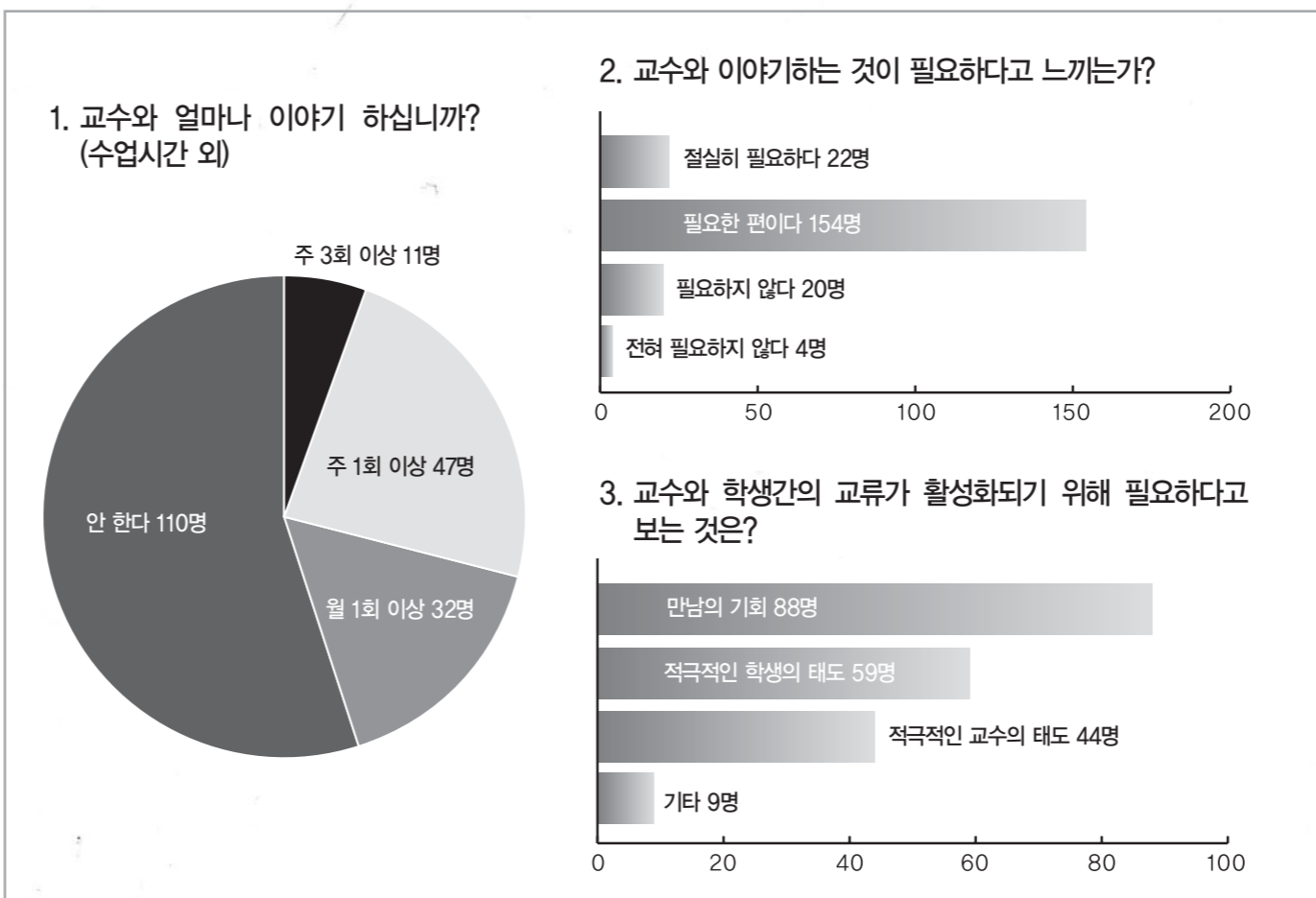
본지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삼 일간 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교수와 학생 교류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110명(55.5%)의 학생들이 교수와 수업 시간 외에는 대화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의 대화 주제도 수업 관련 내용이 대부분으로 조사돼, 학생과 교수간의 관계가 강의에서의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엄미숙(영어영문학부) 교수는 "예전에는 연구실에 들어와 차 한 잔만 달라며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스승의 날에는 연구실 앞에 줄을 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주었다"며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요즘의 학생들의 이런 방문이 뜸해진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본지의 조사에 따르면 '교수와 얼마나 이야기 하십니까?(수업시간 외)'란 항목에 대해 학생들은 ▲안 한다 110명(55.5%) ▲주 1회 이상 47명(23.5%) ▲월 1회 이상 32명(16%) ▲주 3회 이상 11명(5.5%)를 각각 선택했다. 이처럼 두 명 중 한 명은 교수와 한 달에 한 번도 이야기 하지 않는,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수와 수업 외에도 이야기한다고 한 90명의 학생은 '교수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십니까?(중복 2개 가능)'란 질문에 ▲수업관련이 77명으로 가장 많이 택했으며, ▲진로 및 취업 17명 ▲심도 있는 전공 이야기 16명 ▲기타 12명 ▲공모전 및 대외 활동 8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교수와 이야기를 한다는 학생들도 대부분이 수업관련 질문일 뿐 자신의 진로, 전공 학문, 학교생활 등으로는 교수와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자 학생들은 ▲다가가기 어렵다 101명 ▲할 말이 없다 63명 ▲친구와 가족이 대신한다 9명 ▲시간이 없다 11명 ▲기타 10명 ▲무표 6명 순으로 대답했다.



물론 조사 대상인 학생들 154명(77%)도 교수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수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란 질문에 154명(77%)의 학생이 ▲'필요한 편이다'를 택했고 ▲'절실히 필요하다' 22명 ▲'필요하지 않다' 20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4명 순으로 응답한 것이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교수와 학생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교수에게 다가가기 어렵다면 막연한 생각에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이 교수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들에게 '교수와 학생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이란 질문을 묻자 ▲만남의 기회 88명(44%) ▲적극적인 학생의 태도 55명(29.5%) ▲적극적인 교수의 태도 44명(22%) ▲기타 9명(4.5%)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교수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 외의 교류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컸다. 더불어 학생

스스로의 적극적인 태도와 교수의 적극적인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동아리, 소모임 등의 만남의 기회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교수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정명준(기계 4)학생은 "과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교수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대학원 진학, 공모전 준비 등으로 교수님과 상담도 많이 한다"며 "교수님이 아시는 게 많고, 연륜도 있으셔서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주셔서 도움을 받고자 자주 방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학생이 교수와 소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엄미숙 교수는 "예전과 같은 끈끈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경쟁적 사회가 아닌 함께 가는 우호적인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는 경쟁을 부추기질 않고 학생, 교수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며 "학생은 경쟁과 취업에 빠져 인간적인 정을 저버리지 말고 교수들을 찾아 조언을 들길 바란다. 교수들은 기업들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와의 교류가 있으면 취업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신(합계하는교육시민모임)이사는 "교수 1인 5학생제(가칭)등 교수가 학생의 성장과 전문지식 함양을 책임지는 노력이 제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면담시간강화를 통해 상호 교감과 함께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독서 등의 권유와 지도를 통해 인문학과 철학, 비판력, 도전정신, 기업가 정신 등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무한경쟁사회에서 일찍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꿈을 갖고 꿈을 이룰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소통과 연대가 뒤따라야 교수학생간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다. 또한 대학사회가 더 이상 개인화되지 않도록 대학 내 주체들이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흥민 기자 phstian@hansung.ac.kr



주간식단표

2011년 5월 16일(월요일) ~ 5월 20일(금요일)

	월 5/16	화 5/17	수 5/18	목 5/19	금 5/20
한식	연두부제육야채비빔밥(국내산) 콩나물국 오랑무늬 무말랭이무침 김치(배추:국내산)	달다리백숙(미국산) 쌈밥(쌀:국내산) 풀면조림 오복지무침 깍두기	참치야채비빔밥 잔치국수 두부조림 취나물무침 김치(배추:국내산)	돌솥콩나물밥 두부된장국 매추리알조림 팽이버섯부추무침 김치(배추:국내산)	오징어담밥 무채다시마국 동그랑땡전 숙주나물무침 김치(배추:국내산)
양식	치즈돈까스정식(국내산) 옥수수스프 클링글러 아채샐러드 김치볶음밥	데리아기 떡고치볶음밥(중국산) 미역국 계란토스트 아채샐러드 김치(배추:국내산)	치킨까스(국내산) &카레라이스 유부장국 옥수수순분병 아채샐러드 파사이채무침	태국식볶음밥(미국산) 미역국 두부까스&샐러드 단무지무침 요쿠르트	햄박스테이크정식(국내산) 호주산소시음 크림스프 아채샐러드 맛김자 모닝빵&달기잼

◆ 위 식단은 식재료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희 학생식당에서는 쌀, 돼지고기(돈삼겹 제외), 닭고기(닭정육, 닭장각 제외), 김치(배추:국내산, 쇠고기:호주산, 닭정육:미국산, 닭장각:달다리:미국산, 돈삼겹:질래, 벨기에산)을 사용합니다.

기자수첩

2주를 읽어야 할 한달감

신문사의 문을 처음 두드린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습기지를 거쳐 정기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문사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신문 기사가 평가가 나기도 하고, 신문사가 문을 닫을 뻔(?) 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신문사는 묵묵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기사가 잘못되면 다른 기사로 대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모두들 좌절감에 빠져있어도 다시 해보자는 말로 일어섰다. 그리고 지금도 기자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이런 신문사도 한 가지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신문이 도난당하는 사건이었다. 신문사는 격주로 월요일 아침에 신문을 배부한다. 449호를 배부해야했던 그날 아침에도 첫차를 타고 일찍 학교에 와서 신문을 세어보고 있었다. 그런데 신문은 텅없이 부족했다. 누군가가 신문을 훔쳐간 것이다. 거의 1천800부 정도의 신문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당장 신문을 배부하는 것이 더 급했다. 고



박흥민 기자 jangmin@hansung.ac.kr

가로세로

①	①	②		②	⑤	
		③	④		④	
	⑤					
		⑥		⑥	⑥	
		⑧		⑦		
	⑨					

가로

- 축구·농구 때와 같이 전·후반이 있는 구기 경기에서, 전 반과 후반 사이에 쉬는 시간
- 서양 요리에 맛을 돋우기 위하여 넣어 먹는 짭짤한 액체
- 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
- 행동, 성격 따위가 나쁘고 게으름
- 나무 블록 탑의 맨 위층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층의 블록을 하나씩 빼서 다시 맨 위층에 쌓아 올리는 보드게임
- 대학이나 그 밖의 학교의 교정 또는 구내, 교사, 교정으로 순화
-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하는 근거리 통신망. 보통 '무선 랜(WLAN)'이라고 한다.
-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 부업으로 순화
- 전축에 걸여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든 동그란 판

세로

- 컴퓨터나 기타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그 안에 담겨 있는 각종 정보를 사용자 또는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 말은 일 또는 맡겨진 일
- 지각수를 영어로 이르는 말
- 인터넷에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세계 최대의 미국 인터넷 검색엔진 사이트
- 금강석을 영어로 이르는 말
- PC와 같은 기능과 더불어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 전화
- 중동 이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만에 있는 섬나라로, 일회 군주제 국가. 수도는 '마나마'

정답지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인물사진의 거장 카쉬 사진전

사진을 통해 느껴지는 거장의 손길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카쉬 사진전이 열렸다.



▲ 전시장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다.



▲ 카쉬 사진이 담긴 엽서, 프로그램 북 등을 구입할 수 있다.

2009년 3월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카쉬의 사진전이 열렸다. 당시 카쉬 사진전은 한 달여 만에 10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카쉬의 이름이 한국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나타났던 기현상이었다. 그리고 올해 3월 카쉬 사진전이 더 풍성한 볼거리를 한국 관객들과 재회했다. 왜 사람들이 이 사진작가의 이름을 알지 못했음에도 사진에 매료되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을 찾았다.

▲ 수많은 유명 인사들
카쉬는 캐나다의 사진작가로 전 세계 사진가들에게 인물사진의 교과서로 평가 받는 인물이다. 그가 찍은 인물만 해도 1만 5천명에 이르며, 인화한 사진은 15만장에 달한다. 그가 찍은 사진의 숫자보다 그에게 찍힌 사람들의 프로필은 더욱 화려하다. 윈스턴 처칠부터 오드리 헵번, 마더 테레사, 윌트 디즈니에 이르기까지 20세기를 대표하는 가라성 같은 인물들이 가득하다. 카쉬 사진전에서는 이들의 사진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사진전에는 2009년에는 전시되지 않았던 앤디 워홀,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의 사진이 추가되어 우리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회화가 가미된 사진
전시장에 있는 사진들은 두세 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백사진이다. 하지만, 사진들을 흑과 백의 이분법적인 측면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유두현 안내원은 "카쉬는 사진을 찍을 때 6개의 조명기구를 이용했고, 이 중 2개가 주된 조명으로 이용되었다. 하나는 사람의 밑에서 위로, 다른 하나는 위에서 앞으로 비추어 그 교차 부분에 얼굴을 위치시켰다. 이렇게 조명이 배치되면 흑백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그라데이션 효과가 가미된다."고 설명했다. 즉 조명의 위치에 변화를 주어 이분법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거장의 손길
벽에 걸려있는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래쪽에 카쉬의 친필 사인이 있다. 이는 모든 사진이 오리지널 빈티지 사진이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빈티지 사진이란, 사진 촬영에서 인화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직접 관리를 맡는 것이다. 최근 아날로그 감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카쉬가 자신의 사진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인물 사진
자신의 사진을 사랑한 카쉬는 사진의 주

인공이 된 사람들에게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두현 안내원은 "카쉬는 인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했다. 이는 사진 작업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카쉬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지 않고 사진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찍는 방문 작가였다."고 말했다. 카쉬가 인물에 대한 배려심이 충분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카쉬의 인물사진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클로즈업 사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의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사는 집이나 작업장이나 그 사람이 연주하는 악기 등이 함께 찍혀있다. 여기에는 배경을 함께 담아 사진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윌트 디즈니의 사진이 있다. 디즈니의 사진을 보면 해맑게 웃는 디즈니의 모습과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기둥의 모습이 보인다. 기둥에 있는 미키마우스를 통해 디즈니가 만화가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손은 마음의 창
이번 사진전에서는 카쉬가 인물들의 손을 따로 찍은 사진도 감상할 수 있다. 카쉬가 인물사진의 거장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가 사람의 얼굴 사진만 다룬 것은 아니었다. 그

는 "잠시 잠깐의 순간에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그들의 눈에, 그들의 손에, 그들의 태도에 나타난다. 이 순간이 기록의 순간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가 사람의 손을 마음의 창으로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가 찍은 손 사진 중에서도 무하마드 알리의 사진은 아주 인상적이다. 다부진 알리의 손이 그가 권투선수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여기까지 카쉬 사진전에서 발견한 사진의 매력을 나열해 보았다. 하지만, 카쉬의 사진이 가진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카쉬는 한 장의 사진으로 그 사람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가 사진을 찍는 방법과 일화들을 이해하는 것도 작품을 감상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감상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작품에 투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기억에 사진 한 장을 새겨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전시는 5월 22일 까지 계속되며, 성인 1인당 9천원의 입장료만 내면 카쉬의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다.

(카쉬 사진전 정보)세종문화회관
<http://www.sejongpac.or.kr/>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더 도어>

죽어야 사는 남자



<더 도어>는 '시간의 문'을 통해 과거로 돌아간 남자가 두 번째 삶을 산다는 이야기다. 설정이 독특하다. 하지만 영화 소재로 굉장한 건 아니다. 주인공이 과거로 가는 영화는 <백 투 더 퓨처> <터미네이터> <비밀호과> 등 이미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더 도어>는 기존에 나온 이야기를 뒤흔어 반박하는 영화는 아니다. 영화는 차별화를 위한 탈출구로 또 하나의 설정을 덧붙인다. '나를 죽이고 내가 산다'는 다소 과격한 서브플롯이 그것이다. 이걸, 이 전 시간여행 영화들과는 다른 영역이다. 이전 영화들에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하나의 의미 안에서 '교류'했다. 과거의 몸이 현재의 정신이 깃들든, 어린 나와 나이가 나가 만난 그들은(혹은 '그녀') 서로 도움을 주고받거나, 깨달음을 나눴다. 하지만 <더 도어>의 키워드는 '단절'이다. 이 영화 안에서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양립이 허락되지 않는다. 나를 죽여야 내가 사는 상황. 그러니까 이 건 욕망에 관한 영화다.

한 남자가 있다. 이름은 다비드(매츠 미켈슨). 한 때 잘 나가는 화가였다. 한 아이의 아버지,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부서졌다. 자신의 부주의로 딸이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사고를 겪은 후, 모든 걸 잃었다. 딸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며 살던 다비드는 우연히 시간의 문을 발견한다. 시간의 문 너머에는 5년 전, 다비드의 딸이 물에 빠지기 직전의 세계가 기다린다. 과거를 되돌릴 수 있게 된 다비드는 딸을 살려내는데 성

공한다. 하지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5년 전의 나와 마주하게 된 다비드는 그를, 아니 나를 죽이게 한다.

<더 도어>는 2001년 발표된 아키프 피린치의 소설 '시간의 문'에서 시작했다. 발상이 좋은 작품을 만난 감독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아이디어에만 취해서 이야기를 놓치는 게 하나. 이야기를 풀어내는 내용이 아이디어를 따라가지 못해서 좋은 소재를 살리지 못하는 게 또 하나다. <더 도어>는 전자도 후자도 아니다.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안노 사울 감독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법 안정된 연출력으로 녹여낸다. 대중영화로서의 재미를 놓치지 않는 가운데, 이 영화만의 철학적 메시지도 강하게 풀어낸다.

이 영화만의 철학적 메시지라는 건 '나와 나 사이의 경계', 그 모호한 경계에 대한 물음에서 나온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런 거다. 현재의 나는 나다. 과거의 나도 나다.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죽인다. 과거의 나는 죽었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살아있다. 그렇다면 나는 죽은 것인가, 살아있는 것인가. 내가 나를 죽인 것이므로 나는 살인자인가, 살인자가 아닌가. 과거의 나를 대신해 살게 된 인생은 나의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영화가 끝난 후에도 든중한 여운을 남긴다. 게다가 영화 마지막에는 <트루먼 쇼>를 연상시키는 반전 아닌 반전도 있다. 여러모로 흥미로운 영화다.

글·정시우 (무비스트 기자)

Diamond Records

<Thriller(스릴러)>



<Thriller(스릴러)>는 팝 음악 사상 단일 앨범으로 가장 많이 팔려나간 앨범이다. 미국에서만 약 2천2백만 장이 팔렸고 전체 판매고는 1억장을 넘어섰다. 말 그대로 경이로운 수치다. 게다가 한 앨범에서 10곡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들어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흑인 음

악을 전대하던 음반 시장의 풍토를 생각했을 때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 기적의 이면에는 마이클 잭슨의 놀라운 춤 솜씨와 있었다. 당시 그의 퍼포먼스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Billie Jean(빌리진)' 맞추어 몸을 흔들면서 반짝이는 장갑을 양손에 끼우고 중절모를 비스듬히 머리에 올리는 그의 모습은 그것만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춤들은 많은 가수들에게 영향을 주어, 퍼포먼스 중심의 가요 풍토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이 앨범이 가진 장점이 그의 춤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앨범의 음악들은 사운드만으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강한 비트가 어우러져 대중들을 사로 잡은 것이다. 이외에 록이나 메탈의 사운드로 곡에 특징을 주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Beat It(깨버러)'이 있다. 'Beat It'의 중간

에 흘러나오는 기타 사운드는 당시의 내로라하는 기타리스트들에게 골머리를 앓게 할 정도로 엄청난 기교를 보여주었다.

이런 놀라운 사운드는 당시 유행하던 백인 음악의 영향이 컸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흑인의 로큰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엄청난 성공을 만들어낸 것처럼, 마이클 잭슨 역시 자신의 음악에 백인 음악의 색을 집어넣었던 것이다. 보통의 흑인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색을 곧게 밀고 갔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위였다.

이런 크로스오버는 대중들의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것은 당시 레이건 정부가 필요로 했던 바람직한 흑인 청년의 이미지와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흑인임에도 백인 음악을 가미한 그의 행위가 흑인이 백인 사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감한 크로스오버가 마이클 잭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원

인이 되기도 했다. 순수한 흑인음악을 신봉하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은 그가 배신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마이클 잭슨의 앨범을 선호 앨범에서 제외하는 흑인 뮤지션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음악이 가진 장점이 순수성을 파괴했다는 한계를 뛰어 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그의 뛰어난 역량 때문에 만약 그가 지금도 살아남아 우리에게 'Billie Jean'을 다시 한 번 들려줄 수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크로스오버: 본래 신봉하던 장르와 반대되거나 다른 성질을 가진 장르를 뒤섞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말한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사진이야기



이 사진은 태국에 여행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태국은 도로에 신호등이 있어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과 오토바이가 많아서 길을 건너기가 위험한데, 노부부가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모습이 다정해 보여서 찍었습니다.

정혜인(이때 2)